



포스코,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100대 기업 중 30위로 급부상

- WEF(다보스포럼)는 지속가능경영 관점에서 뛰어난 성과를 올린 글로벌 100대 기업을 선정해 2005년부터 공개
- 환경/기후 부문 성과 및 재무성과와의 연계성을 중시하는 평가 추세로 포스코가 관련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30위로 급상승
- 향후 ① 업종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 경영활동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체화하고, ② 글로벌 평가체제에 적극 대응해야 하며, ③ Sustainability PR 및 IR 활동도 더욱 강화

1. 포스코,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100대 기업으로 선정

- World Economic Forum(다보스포럼)은 매년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는 기업 'Global 100'을 발표
 - Global 100 순위는 캐나다 미디어 기업 Corporate Knight가 지난 2005년 처음 발표한 이후, 2010년부터는 평가모델을 더욱 세밀화하였으며, 올해 들어 8번째 순위 발표
- 포스코는 금년 평가에서 지금까지 중 가장 높은 30위 기록
 - 국내 기업 중에서는 포스코(30위)와 삼성전자(73위)만 순위 내 진입
 - 포스코는 2010년 국내 최초로 95위에 랭크 되었고, 2011년에는 순위 내에 들지 못했으나 금년에는 30위로 급상승

2. 환경 및 기후변화 부문에서 좋은 평가 받아

- 두 단계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통해 순위 결정
 - 1단계: 전세계 주요 기업에 대해 포괄적인 지속가능성 수준 평가
 - 선진국과 개도국 증시의 3,500개 주요 기업에 대해 ESG(환경, 사회, 지배구조)와 재무적 성과를 평가하여 상위 400개 기업을 'Global 400 Sustainability Leaders'로 추출
 - 2단계: 400개 기업을 산업별로 구분하여 동종산업 내에서 상대 평가하여 최종 순위 선정
 - Global 400 Sustainability Leaders로 선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11개의 성과지표를 적용해 동종산업 내 수준을 평가
 - 교수, 기업, 컨설턴트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Global 100 Council의 리뷰를 통해 'Global 100' 최종 선정

Global 100 11 개 성과지표	
① Energy Productivity(에너지생산성)	⑦ CEO to Average Employee Pay (CEO-직원 평균임금 격차)
② GHG Productivity(온실가스생산성)	⑧ Safety Productivity(안전생산성)
③ Water Productivity(수자원생산성)	⑨ Employee Turnover(직원이직률)
④ Waste Productivity(폐기물생산성)	⑩ Leadership Diversity(리더십다양성)
⑤ Innovation Capacity(혁신역량)	⑪ Clean Capitalism Paylink(합리적 성과보수)
⑥ Taxes Paid(납세)	

□ 환경 및 기후변화 부문에서의 적극적인 대응과 구체적 재무성과로의 연계를 강조하는 것이 특징

- ESG(환경, 사회, 지배구조) 평가를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의 지속가능경영 기반역량을 갖추지 못한 기업은 고려대상에서 배제
- 2단계 최종 선정과정에서는 환경/안전 부문의 성과를 중시하는데, 지속가능성 성과를 재무성과와 연계하여 평가함. 다만, 사회부문에서는 직원 이직률, 다양성과 같은 부분적인 성과지표만 반영하여 포괄성 다소 떨어짐

□ 포스코는 환경 및 기후변화 부문에서 업종평균을 상회하는 양호한 평가를 받음

- 업종별로 평가하는 환경 및 기후변화 분야 성과지표인 온실가스, 에너지, 수자원, 폐기물 생산성 등에서 양호한 평가
- 반면, 업종 구분 없이 평가하는 리더십 다양성, 혁신역량 등에서 다소 낮은 평가

3. 경제, 환경, 사회 전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추세

□ Global 100 순위에서 30위에 오른 것은 그간 창조 경영(경제), 환경 경영(환경), 열린 경영(사회)을 견실하게 추진해 온 결과

- 명확한 경영이념 하에 지속가능경영을 적극 추진한 결과, 온실가스 및 환경성과, 사회적/재무적 성과를 개선시켰고, 이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쾌거로 볼 수 있음

□ 기업 경쟁력을 경제, 환경, 사회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는 Global Trend를 예의 주시

- WEF의 Global 100은 *Financial Times*의 존경 받는 기업, DJSI, CDP 등에 견줄만한 대표적인 글로벌 평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
- 특히, 지속가능경영 평가기관은 점차 업종별 특성에 고려한 평가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함
 - 성과를 중심으로 더욱 엄격해진 DJSI, CDP 등의 최근 평가에서는 포스코는 철강업종에서 선두권 유지. 향후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 성장해야 함

□ 따라서, ① 업종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 경영 활동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체화하고, ② 글로벌 평가체제에 적극 대응해야 하며, ③ Sustainability PR 및 IR 활동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

[첨부] 포스코 대 삼성전자 평가결과 비교

	2012년												2010년
	종합	①	②	③	④	⑤	⑥	⑦	⑧	⑨	⑩	⑪	
포스코	46.50% (30위)	1,172 (US\$)	16,436 (US\$)	14,430 (US\$)	52,748 (US\$)	1.04 (%)	95.09 (%)	-	26,056 (US\$)	-	0%	0%	93위
삼성전자	29.41% (73위)	2,417 (US\$)	13,453 (US\$)	1,388 (US\$)	160,734 (US\$)	4.65 (%)	49.87 (%)	-	-	4.9 (%)	0%	0%	91위

주: 1) 2011년 100대 기업평가 결과: 삼성전자 93위(포스코는 순위 내 들지 못함)

2) 2012년 1위 덴마크의 Novo Nordisk A/S 평가결과: 74.37%

❖ WEF Global 100 평가 기준

- ① Energy productivity(에너지생산성) - 에너지소비 대비 매출액(US\$, 2010)
- ② GHG productivity(온실가스생산성) - 온실가스 배출 대비 매출액(US\$, 2010)
- ③ Water productivity(수자원생산성) - 물 사용 대비 매출액(US\$, 2010)
- ④ Waste productivity(폐기물생산성) - 폐기물발생량 대비 매출액(US\$, 2010)
- ⑤ Innovation capacity(혁신역량) - 매출액 대비 R&D 투자(% , 최근 3 년 평균)
- ⑥ Taxes Paid(납세) - 법정과세액 대비 납세액 비율(% , 최근 4 년 평균)
- ⑦ CEO to Average Employee Pay(CEO-직원 평균임금 격차) - 임직원 평균 임금 대비 CEO 보수(배, 2010)
- ⑧ Safety productivity(안전생산성) - 사망 및 상해 대비 매출액 (US\$, 2010)
- ⑨ Employee turnover(직원이직률) - 직원의 고용 유지 비율(% , 2010)
- ⑩ Leadership Diversity(리더십다양성) - 이사회 여성멤버 비율(% , 2010)
- ⑪ Clean capitalism paylink(성과와 보수연계의 합리성) - 경영층이 깨끗한 자본주의를 위해 성과와 보상의 합리적 연계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가산점 부여(% , 2010)

작성자: 안정권 녹색성장연구실 책임연구원 (reclaimant@posri.re.kr)

안윤기 녹색성장연구실장 (ygahn@posri.re.kr)

☞ 이 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포스코경영연구소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,
작성자 개인의 의견임을 밝혀둡니다.